

21C에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자율안전관리체제를 정착시켜야...



제33회 산업안전보건강조 주간을 맞이하여 대한 산업안전협회에서는 「21C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한 기술세미나를 지난 6월 7일 COEX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독일 민간재해예방기관 TÜV Product Service Korea의 안드레아스 룰 대표이사가 『독일 민간재해예방기관 TÜV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21C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 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김찬오교수가 『21C 민간재해

예방기관의 역할과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여 참석자 200여명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안드레아스 룰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감시와 관리업무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민간단체를 감독하는 역할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김찬오 교수는 국제적 동향과 주변환경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 안전관리 정책과 구조, 법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 내었다. 이에 김찬오 교수는 “정부 출연 및 투자기관은 정부지원 업무인 기술연구개발, 정보보급, 재해조사, 민간기관담당자 교육 등의 공적인 업무에 치중하여야 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은 자율안전관리체제에 있어 제3자 감시(인증, 지도)자로서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 사업주의 재택근로자 안전책임 해석 철회

미국 Alexis Herman 노동부장관은 재택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사업주가 책임있다고 한 노동부 산하 OSHA(산업안전보건청)의 해석(2000.1.5)을 철회했다.

OSHA는 재택근로자의 작업장인 “가정 사무실”의 위험한 계단, 조명, 환기상태 등으로 인한 재택

근로자의 위험을 사업주가 제거해야 한다고 사업주의 질의에 대해 해석하였었다.

그러나 사업주단체와 공화당 의원들이 근로형태·작업장의 변화추세를 무시한 조치라고 반발하자 OSHA의 해석을 철회하였다.

제18회 국제안전기기전시회 11개국서 참여

지난 6월 7일 강남구 삼성동 COEX 3층 대서양관에서는 국내 안전기기 산업의 육성과 국내외 안전기기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국제 안전기기 전시회가 열렸다.

이날 개막행사에서는 崔善政 노동부장관을 비롯해 李南 한국노총위원장, 金昌星 경총회장, 曹舜文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李洪志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등 20여명의 노·사·정 대표의 컷팅식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제18회 국제 안전기기·작업환경개선·소방산업 전시회는 미국, 일본, 독일 등 11개국 123



개업체가 각분야별 최신기기 9천여점이 전시되었으며, 많은 관람객의 참여로 성공적으로 끝났다.

중·소건설현장 재해예방전문지도 대상 현장 확대

지난 6월 12일 노동부 홈페이지에 올린 “2000년도 건설안전 추진사업”에서는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지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올해 추진사업으로 포함시켰다.

현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기술지도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제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추가청 지정 폐지를 추진한다. 또한 토목공사는 150억, 그 외의 공사는 120억원으로 기술지도 대상을 현행 100억에서 확대한다.

현행 재해예방전문지도 대상에서 제외된 3억 미만

의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점검지도보다 기술서비스, 교육지원을 통해 자율개선 의지를 고취시켜며, One-Sheet 기술자료를 활용한 기술 지원이 무료로 이루어진다. 그 외 중·소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건설안전 패트roller”반을 운영하며,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 확인을 병행한 내실 있는 점검을 받기 1회 이상 실시하는 2000년도 건설안전 사업추진 사항을 내놓았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지원

노동부는 산업안전국에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팀”을 운영하여 국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은 산업안전분야 강의교육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팀” 소속 교수 등으로 하여금 출장 강의형식으로 지원하며,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또는 서울 500-5618 번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2000년 3월말 현재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

자는 약23만여명으로 99년도는 715명의 재해자가 발행하였으며, 이중 20명이 사망 재해를 당했다. 그동안 외국인에 대한 교육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건설협회 등 연수추천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교육이 대부분이었으며, 교육내용도 비디오 30분 상영으로 끝내 구체적인 산업안전교육이 없는 형식적인 교육에 지나쳤다. 이에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현장 91% 안전조치의무 위반

노동부는 지난해 11.15~12.7까지 동절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반 및 토사붕괴, 추락, 낙하, 화재 등 재해발생 우려가 큰 지하철, 고속철도, 아파트, 도로 및 교량 공사현장 등 전국의 884개소 건설현장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800개소(전체의 91%) 현장에서 법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사법처리 10개소, 전면작업중지 6개소, 부분작업중지 10개소, 위험기계·기구 사용중지 63대, 시정명령 2,482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현장당 평균위반건수는 2.8건이며, 이중 중건설

현장(댐, 건설, 수력발전소 등)의 위반건수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아파트, 빌딩, 지하철, 기타현장이 3.2건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점검건설현장의 약 91%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각종 안전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며, 특히 점검결과 안전조치가 불량한 현장(작업중지, 사용중지, 시정지시를 7건 이상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별도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밝혔다.

노동부 감전·붕괴재해예방 장마철대비 현장안전점검

장마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감전 및 침수·붕괴 등의 재해예방을 위해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장마철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6월중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공능력 3백위이하 업체가 시공중인 현장 중 감전, 붕괴 등이 우려되는 현장과 3백위 이내 업체 현장 중 평균재해율 보다 2배 이상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추락, 낙하 예방조치 상태 및 검정기자재 사용여부/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상태/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안전관리조직, 교육, 표준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상태 등이다.

노동부는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작업중지, 시정지시 등 강력한 행정·사법조치와 함께 지적사항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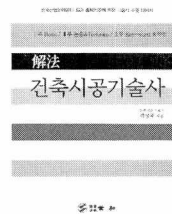
신 간 도서 안내



건설안전기서/
건설안전산업기사

저자 정재수/신승우/
권희봉/김광태
류음

도서출판 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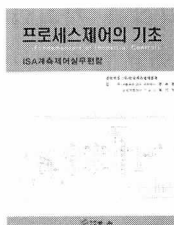
해법

건설시공기술사

저자 시공기술사

박성국 지음

도서출판 세화



프로세스제어의 기초
-ISA 계측제어실무편람-

번역편집 :
(사)한국계측제어협회
감수 : 권옥현/최기원

도서출판 세화



영유아를 위한
안전교육

저자 : 이기숙/정미라/
배소연/박희숙

공저

양서원